



430만명 방문한 밤도깨비 야시장, 올해 어디서 열까

푸드트럭 189대 참여...내일 시청서 올해 운영설명회 개최

서울의 대표 야간명소인 '서울 밤도깨비야시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방향 설명회'를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의 개최장소와 시기부터 참가상인 모집 및 선정 등 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지속가능한 야시장 운영을 위해 참가비 산정 기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간평가 실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올해 야시장 개최지역 및 지역

별 특색을 반영한 야시장 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의견도 모은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상인은 물론 야시장을 방문했던 시민들도 함께 참석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의견 공유와 조언으로 상인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야시장을 조성하도록 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은 2015년 시범운영 후 2016년부터 매주 주말 여의도, 반포, 청계천 및 경계광장, 마포문화비축기지 등에서 상설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267회를 개최해 시민 428만 명이 방문했다. 참여한 푸드트럭은 189대, 핸드메이드상인은 317개팀,

매출은 총 117억 원이었다.

이번 운영방향 설명회는 관심 있는 시민과 상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석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9일 오후 2시까지 설명회가 열리는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로 오면 된다.

이성은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서울 대표 명소로 자리잡은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이 상인에게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더욱 특색 있는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경기도 버스 대란 일어나... 10일 총파업 예고

내일 경기지방노동위 노동쟁의 조정 기한 끝나

경기도 내 8개 버스 노조가 10일 총파업을 앞두고 쟁의행위 신고와 파업 이후 진행할 집회 신고를 마쳤다.

한국노총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소속 8개 노조는 7일 경기도와 수원시, 군포시 등 해당 지자체와 8개 노조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각 지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수원서부경찰서에 10일 파업 돌입과 함께 오후 2시 개최할 도청 앞 집회 신고도 했

다. 노조는 올해 도내 다른 사업장의 평균 인상액을 웃도는 임금 인상과 정년 만 66세 연장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최저시급 수준의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의 파업 여부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기한이 끝나는 9일 결정된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1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데 이어 같은 달 20일과

21일 이를 동안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해 전체 조합원의 91.42%가 파업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상태다.

참가 노조는 경기지역객운수·삼경운수(수원), 보영운수(군포), 삼영운수(안양), 경원여객·태화상운(안산), 소신여객(부천), 시흥교통(시흥) 등이다.

노조 관계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 각 지자체 등에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쟁의행위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뉴스



미 대사관 앞 줄 선 시민들 미국 연방정부의 섯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16일째로 장기화하고 있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에 영사업무 보러 온 시민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경기지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3.7% ↓

경기도는 경기지역 PM10(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7년 51 $\mu\text{g}/\text{m}^3$ 에서 지난해 44 $\mu\text{g}/\text{m}^3$ (잡정)로 13.7% 낮아졌다고 6일 밝혔다.

PM2.5(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도 같은 기간 27 $\mu\text{g}/\text{m}^3$ 에서 25 $\mu\text{g}/\text{m}^3$ (잡정)로 7.4% 줄었다.

도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 좋음' 일수는 2017년 87일에서 지난해 128일로 늘었고, '나쁨' 일평균 미세먼지농도 35 $\mu\text{g}/\text{m}^3$ 초과' 일수는 2017년 88일에서 지난해 74일로 감소했다.

도는 이런 결과는 2017년부터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뉴스

서울시, 취약계층에 세탁기 1천대 전달

약 7억7000만원 상당

서울시가 전국 리사이클센터와 함께 아동·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에게 세탁기를 지원했다.

시는 전국 리사이클센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7일 오후 3시30분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기부 전달식을 포함한 행사를 열었다.

주제는 '아름다운 동행'이다. 전국 리사이클센터 중 8곳에서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행사 수익금으로 세탁기 세제품이 지원된다.

전국 리사이클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11개 지자체를 순회하며 세탁기 지원사업을 펼쳤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에 1000대의 세탁기(1대

당 15kg, 약 7억7000만원 상당)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했다. 수혜자 중 50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세탁기는 시 저소득 아동·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1000세대에 배분된다. 서울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해 880대,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를 통해 100대, 행사 공연을 맡은 사단법인 숲아를 통해 20대가 각각 지원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탁기를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시는 앞으로도 자발적 민간지원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박원순 "광화문 재구조화 속도...靑 이전 보류로 불확실성 제거"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좀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 광화문 이전이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광화문 재구조화는 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광장 확대, 보행로 연결, 역사성 복원 등을 이유로 지난 2016년부터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설계 공모작을 심사해 21일 당선작을 발표한다.

시는 내년 말 새 광화문광장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 착공해 2021년 5월까지 광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미 국제공모가 지금 사실상 끝났다. 그러면 실시설계 거쳐서 2년 정도 후면 완공될 것"이라며 "광장 재구조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니다. 현재 광화문 광장이 약 3배 이상 커지게 된다. 역사적인 관점이나 시민들의 편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소상공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0%로 낮추는 '제로페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범

서비스 기간 중이다. 결제인프라, 가맹가입절차, 사용자, 인센티브 등의 개선점을 계속 찾고 있다"며 "3월 정식출범 전까지 지속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들 가맹점들이 다 들어왔다. 지금 아주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써보니까 휴대전화 가지고 바로 찍으면 될 정도로 간단하다. 오히려 저는 피소비가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처음 뭐든지 바꾸면 불편한 것 있다. 그렇지만 금방 적응될 거라고 본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같이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